

최종구 “그림자규제 일괄 정비… 국민체감형 금융혁신”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2019년 업무계획

최대 6개 금융사 신규 진입 허용
보험약관 소비자 눈높이로 개선
가계부채 증가율 5%대 유지키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7일 “불필요한 영업규제는 과감히 개선하는 등 규제혁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정책의 무게추가 기존 포용 중심에서 혁신으로 옮겨졌다. 금융혁신으로 경제활력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금융 자체도 혁신 필요성이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소비자보호를 위해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정비하며,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해와 같은 5%대로 억제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내놨다.

올해 업무계획의 방향은 ▲경제활력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19년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

뒷받침 ▲소비자 중심의 신뢰받는 금융 ▲확고한 금융안정 유지 등이다.

최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활용, 비대면화 등 산업 구조와 시장 여건의 변화를 금융규제 개혁의 기회로 활용

해 금융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보험사의 건강진형 상품 활성화, 카드사의 빅데이터 활용 컨설팅 업무 수행, 비대면 방식의 신탁계약 체결 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사 혁신을 가로막는 그림자규제도 일괄 정비할 방침이다. 행정지도 39건, 모범규준 280여건이 대상이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는 최대 6개 금융회사의 신규 진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미 지난 1월 한화손해보험과 SKT, 현대자동차가 함께 만드는 인터넷 전문보험사 ‘인핏손해보험’을 예비인가했고, 이달 들어서는 3개 업체(대신자산신탁·신영자산신탁·한투부동산신탁)에 대해 부동산신탁 예비인가를 내줬다. 오는 5월에는 최대 2곳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가 예정돼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선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특히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가장 불편하다고 지목된 보험약관, 대출

금리 산정, 채권추심 분야 등이 주요 개선 대상이다.

그는 “어려운 용어 사용 등으로 인해 소비자 분쟁을 유발해 온 보험약관의 경우 작성·검증·평가체계를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개선하겠다”며 “개인채무자 권의 보호를 위해 금융사의 손쉬운 부실채권 매각을 제한하고 무분별한 시효연장 등의 추심관행을 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에도 ‘계좌이동 서비스’가 도입된다. 주거래 금융사를 바꿀 경우 번거로움 없이 자동납부계좌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또 일일이 여러 은행을 방문해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함을 없앨 수 있도록 다른 은행 예금계좌 정보를 조회·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투자자를 우롱하는 ‘올빼미 공시’ 방지책도 마련된다. 회사에 불리한 정보를 지연공시한 기업들에게 명단 공개 등 불이익을 부과하며, 노동·소비자 관련 등 비재

무적(ESG) 정보도 공시토록 추진한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목표치는 5%대다. 2021년까지 연평균 증가목표율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예측치인 5%다.

금융위 손병두 사무처장은 “소비 제약, 부동산 침체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증가율 억제에 점진적으로 하려 한다”며 “올해는 5%가 적정하다”고 밝혔다.

2분기에는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에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여신관리지표로 도입하고, 은행권에는 가계부채 경기대응완충자금을 쌓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주력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혁신·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제시했다.

중소 조선·기자재, 자동차 부품업체에는 총 4조6000억원의 유동성이 공급된다. 유망 스타트업 인착 등에는 5년 동안 190조원의 정책금융 자금을 공급한다. 기업은행이 100조원, 신용보증기금이 90조원 등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개최된 WM스타자문단3기 발대식에서 (앞줄 왼쪽 네번째부터) 김영길 KB금융 전무, 허인 KB국민은행장, 박정림 KB증권 사장과 스타자문단3기 전문가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B금융, ‘WM스타자문단’ 3기 출범

KB금융그룹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자산관리(WM)스타자문단’ 3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17년 2월 처음 출범해 올해로 3년째인 WM스타자문단은 은행, 증권, 자산운용의 자산관리 분야 최고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돼 있다. 맞춤형 포트폴리오 제안, 투자상품 매칭, 은퇴·노후설계, 부동산 투자자문, 세무·회계 컨설팅 등 자산관리 모든 분야에 대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금융업계 최정예 자문서비스 조직이다.

WM스타자문단 소속 전문가들은 각 해당 분야에 업무경력 10년 이상이거나 전문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특히 이번 3기 자문단은 고객 고품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탁상품 전문가를 추가로 영입하고, 새롭게 선보일 KB자산승계 서비스 제공에 특화된 전문가를 발탁했다. 또 직급과 나이를 넘어 최고의 실력을 겸비한 전문가들이 합류해 보다 젊고 역동적인 자문단으로 거듭났다.

KB금융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더욱 향상된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성했다”며 “WM부문에서 축적된 자문서비스 제공 역량을 더욱 체계화해 진정한 원팀(One-Team)으로 고객 시너지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KEB하나은행 청춘과 소통 위한 ‘유스 프로그램’

KEB하나은행은 신학기 시작과 더불어 젊은 고객과의 양방향 소통을 위한 ‘유스(Youth)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즌제로 운영 예정인 이번 프로그램은 유스세대의 관심을 적극 반영해 ▲마케팅크루 ▲러닝크루 ▲버스킹 프로젝트 등 총 3가지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마케팅크루는 ‘청춘을 마케팅하라’를 주제로 진행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대학생들이 젊은 세대의 금융니즈를 은행의 유스 마케팅 전략에 반영하기 위해 기획됐다. 최우수 아이디어 팀을 선발해 300만원의 상금과 상장을 준다.



러닝크루는 ‘영(Young)하나, 런(Run)하나’를 주제로 진행되는 체험형 마케팅으로 최근 유스세대의 러닝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한 프로그램이다. 10km 마라톤 코스에 도전하고픈 20대를 대상으로 8주간 체계적인 러닝 프로그램과 러닝화, 유니폼 등을 제공한다. /김문호 기자

시중銀-지주,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 잇따라

(코코본드)

자본비율 보수적 유지 경향 요인
시중銀, 자금조달 수단 활용 늘 듯

신종자본증권이 ‘부채’로 분류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도 국내 금융지주와 시중은행의 ‘코코본드(조건부 자본증권)’ 발행이 이어지고 있다. 자본비율을 보수적으로 유지하려는 경향 때문이다.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일부 조건의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부채성’이 강하다’고 판단한 후 시장 일각에서 ‘공포’가 지배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국내 은행들은 대부분 규제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신종자본증권의 자본성이 유지될 것이라 평가다.

낮아진 조달비용도 한 몫 한다. 4대 시중은행의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은 주요국 은행보다 낮은 46bp(100bp=1%포인트)까지 하락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은 각각 4000억원, 2000억원 안팎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바젤Ⅲ 규제에 매년 후순위채무 자본인정금액이 감소하면서 이를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자본규제 강화 기조에 발맞춰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을 15%선으로 유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전날 우리금융지주는 자회사인 우리은행이 운영자금 3000억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국내 무기명식 무보증 무담보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권)’을 발행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보완자본 확충을 통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

(2019년 국내 은행 및 금융지주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 현황) 단위: 십억원·%

발행기관명	발행금액	발행일	만기일	금리(%)	발행방법
SC은행	600	01.28	'29.01.28	2.65	사모
국민은행	503.5	02.01	'29.02.01	4.50	공모
경남은행	100	02.08	'29.02.08	3.18	공모
BNK금융	100	02.20	-	3.74	공모
신한은행	300	02.25	-	3.30	공모
기업은행	350	-	-	공모	10년 또는 5년 중도상환 가능

주: 2019년 2월 26일 기준.

/자료=본드랩, 기업은행 공시,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운영자금 3500억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국내 무기명식 무보증 무담보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BIS 비율을 제고해 은행 경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고자 한다”며 “사채의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 등은 발행 당시 시장 실세금리를 반영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들어 국민은행, 신한은행, 경남은행, BNK금융, SC은행 등이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했다.

국민은행은 운영자금 5035억원을 조달하기 위해 해외 기명식 무보증 무담보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후순위채) 발행했다. 회사 측은 “보완자본 확충을 통해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도 3000억원 규모의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했다.

시중은행들은 앞으로도 조건부자본증권을 자금 조달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NH투자증권 최성종 연구원은 “은행들의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은 2019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바젤

Ⅲ 이전 발행됐던 조건부 자본증권의 자본인정 한도가 차감되는 가운데 자본비율을 보수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은행의 의지가 높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특히 일반은행에 비해 자본비율이 낮은 특수은행들도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농협은행, 기업은행, 수협은행의 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각각 15.53%, 14.57%, 14.03%로 시중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낮아진 조달비용도 한몫한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국내 4대은행(KB국민·하나·신한·우리)의 CDS프리미엄은 46bp(100bp=1%포인트)로 미국(59bp), 유럽(63bp), 일본(54bp), 중국(60bp) 등 주요국 은행들보다 낮아졌다. 2년전만 해도 국내 은행들의 CDS프리미엄은 이들 국가 은행들보다 높았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기업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조건부자본증권 포함)의 총 잔액은 29조5300억원에 이른다. 금융회사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잔액이 약 18조6300억원, 비금융회사의 잔액이 10조9000억원이다. 2013년 신종자본증권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된 후 발행이 급증했다. /김문호 기자 kmh@

KB국민은행 한 번 신청에 통장·카드 동시발급

KB국민은행은 모바일 뱅킹서비스인 KB스타뱅킹앱에서 통장과 KB국민카드를 한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통장+카드 동시 발급 서비스’를 이용

하면 기존에 KB국민은행과 거래가 없던 고객도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한번의 본인확인 절차만으로 통장과 카드를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다.

또 KB국민은행의 통장을 보유한 고객

은 계좌확인을 통해 간편하게 카드 신청을 할 수 있어 고객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

KB스타뱅킹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KB국민카드에는 현재 16종(신용카드 8종, 체크카드 8종)으로 KB국민은행 영업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카드 중 인기 있고 혜택이 많은 카드로 업선됐다. /안상미 기자